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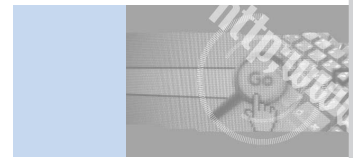


보험사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혁신방안에 관한 소고

李 碩 皓 (研究委員, 3705-6391)

최근 발표된 보험사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혁신방안들 중,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마련되었지만, 리스크관련 제도 및 자동차보험의 No-fault제도 도입, 보험사기 예방 강화, 사업비 부과방식 변경 등과 관련 몇 가지 사안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.

- 최근 감독당국은 「보험회사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혁신방안」을 마련·발표
 - 동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에는 보험사의 내부혁신을 통한 경영 선진화, 신상품 개발 촉진 및 효율제도 선진화, 판매채널혁신을 통한 보험서비스 선진화, 자산운용의 다양화 및 수익성 제고 등이 있음.
 - 이 밖에도 자동차보험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기타 자율규제기능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.
- 이번 혁신방안은 최근 내수경기 회복 지연, 금리역마진 우려 및 기존 보험시장의 포화 등 보험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영업관행 및 경영구조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게 제시된 것으로 여겨짐.
 - 특히 신계약비 부과방식 변경 및 모집자 실명제 등과 같은 소비자보호 강화, 소외층의 보험가입 편의성 제고, 공익사업 및 사회봉사활동 추진 계획들은 무엇보다도 향후 지속적인 실천이 중요하겠지만, 환영할 만한 방안들이라 판단됨.
- 한편,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마련되었지만 금번 발표된 혁신방안들 중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.



- 첫째, 리스크 평가제도(RAAS) 및 리스크기준 자기자본 규제제도(RBC)와 관련하여, 보험사의 지배구조, 운영리스크, 그리고 자연재해 및 테러관련 리스크 등과 같이 정량적 관리로는 다루기 힘든 리스크에 대해서도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관리·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.
 - 특히, 지배구조 및 경영합리화와 관련된 리스크관리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매우 중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사외이사제도의 합리적 운영, 독립보험계리인 제도의 활성화 및 시장공시기능 강화 등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문임.
 - 한편, 향후 금융겸업화의 진전으로 보다 다양한 업종간 위험이 교차·확대될 경우, 한 업종의 위험이 전체 금융그룹 또는 금융산업 전반의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독당국 및 금융그룹 차원의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

- 둘째, 보험범죄 예방기능 강화와 관련, 장기적으로 보험사기의 근절을 위해서는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사기의 범죄성과 그 비용 및 피해에 따른 부작용 등을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계도할 필요가 있음.
 - Accenture가 2004년 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, 보험사기의 원인에 관한 질문응답자의 56%가 ‘보험사기를 저질러도 관용 받거나 적발되지 않을 것’이라는 믿음 때문이라고 대답함.
 - 따라서 보험협회 및 유관기관 등은 이와 같은 잘못된 믿음 및 정보를 계몽하기 위해 미디어 등을 통한 적극적 홍보활동 필요(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TV광고 및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홍보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.)

- 셋째, 사업비 부문과 관련하여, 감독당국은 보험사의 사업비 내역에 대한 공시기능을 강화하고 사업비 책정과 관련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정비를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임.
 - 특히 보험사별로 각 상품별 사업비 비율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여 비교·공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비교·선택 권리를 보호하고 보험사간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.

- 마지막으로, 자동차보험에서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하는 No-fault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부작용 방지에 대하여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.
 - 예를 들어, No-fault제도 실시로 인한 부작용으로 도덕적 해이(과도한 청구 또는 의료서비스 이용) 확산, 운전자의 주의 유인 감소 등이 예상됨.